

「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TF」 말씀자료

1. 인사말씀

□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입니다.

- 지난 4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TF에 참석해 주신 금감원, 한국은행, 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□ 그간 정부는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, 연대보증 폐지, 혁신모험펀드 조성, 동산담보 활성화 등 '생산적 금융'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.

➡ 오늘,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그 중 '생산적 자금중개 기능'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.

2. 추진 기본방향

□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것이, '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'일 것입니다..

- 이를 위해서는, 자본규제 등 '자금중개 유인체계'가 올바르게 설계되고, 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□ 이러한 인식하에, 금번 개편방안은 자본비율, 예대율 규제,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,

- 이를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, 창업·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① 먼저, 자금중개 본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찾아 개선·보완하였습니다.

- 특히, 혁신기업 보다 가계대출·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'균형추'를 세우고,
- 쏠 금융업권의 가계금융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.

②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,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을 넘어, 거시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틀을 강구하였습니다.

③ 아울러, 생산적 자금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자본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완화·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□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,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'유인체계 본연의 취지'도 충분히 감안하였습니다.

○ 자본규제가 일률적인 자금배분의 잣대는 아닌 만큼, 시장에 급격한 부담 증가없이 "생산적 자금흐름을 부드럽게 유도(Nudge)"할 수 있도록 적정 규제수준을 모색하였습니다.

3. 개편방안 주요내용

□ 그간 총 20여 차례 심도있는 실무 TF 논의를 거쳐, 구체적으로 '3대 과제'를 중심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① 먼저,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등을 위하여 고위험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신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① 은행·저축은행·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60%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하고,
(예 : 위험가중치 현행 35%~50% → 70%)

- 은행권에 준하여 주담대 위험을 세분화하는 등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.

② 은행 예대율 산정시, 가계 - 기업대출에 가중치를 각각 15% 가감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겠습니다.

- 당초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바, 글로벌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·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시장상황을 보아가며, 중장기적으로 예대율을 유동성 규제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② 다음으로,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하여 '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'을 도입하겠습니다.

- 가계부채 증가속도,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계신용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하여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함으로써,
- 가계부문의 신용공급 유인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,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③ 마지막으로,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비율, 건전성 분류, 대손충당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도 마련하였습니다.

①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해 중기특화증권사의 투·융자에 따른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

-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*하겠습니다.

* [현행] 6%~12% (코넥스와 동일) → [개선] 5%~10%

②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.

- 예컨대,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부여된 점 등을 감안하여, 기존 대출 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③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·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.

- 이를 통해, 중소기업업권의 충당금 부담이 약 760억원 경감 되어, 생산적 분야로 지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4. 마무리 말씀

□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,

-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
- 나아가,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, 금융시스템의 안정성·신뢰성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□ 대부분 개선방안이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사항인 만큼, 발표 이후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- 다만, 개별 금융회사별로 여건이 다르고 준비도 필요한 만큼, 규정개정 단계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, 유예기간 부여 등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필두로,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, 동산담보·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